

시론

소상공인 우산 빼앗겠다는 정부



김성진
前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정부방침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면서 정부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두 시간 근로 등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기준 525만1천164개로, 전체 사업장 607만9천702개의 86%를 웃도는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777만9천460명으로 전체 근로자 2천493만1천600명의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줄곧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근로기준법이라는 소상공인의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계만 피해를 주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상황을 타협과 절충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모두에게 현재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의 범위와 속도인 것이다. 근로기준법 확대시행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이 줄어든다면 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성급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최저임금제 도입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사업주들이 준비할 여력이 없이 빠르게 시행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들은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고용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제통계연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22년 10.2%인데 반해, 40세 미만 청년사업자의 폐업 비율은 '22년 16.5%로 심각한 상황이다. 광주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22년 도 11.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중소기업기업연구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7년 2분기부터 최근 5년 동안 1분기에 부실이 한번 이상 발생한 사업자 수는 24만9천342개이며, 그 비중이 무려 30.5%에 달한다.

실得力이 있다. 사전에 면밀한 준비 없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2018년 최저임금제 인상시의 정책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 시행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부작용을 정확히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정부정책은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제도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계에서 보듯이 지역과 연령층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도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정은 각 지자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이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연차휴가와 야간수당 등을 우선 시행하되 추가되는 비용은 정부가 1차년도 80%, 2차년도 60% 등 5년 동안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감안할 때 이제 전 사업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아직 우산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큰 기둥중의 하나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지역경제도 무너진다. 가정경제까지 무너지면 민생이 무너진다는 것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정부 여당을 향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부담은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휴폐업 및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당연하다. 그리고 최근 거중되고 있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힘

기고

성공하기 위한 당신의 선택은?



이문영
광주시 북구새마을회장

혼자하는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여 광고 수익을 창출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만든 상품이나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쇼핑몰 운영, 중고물품 판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혼자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 반면에 개인 블로그의 협업을 통한 활동 예시를 들어본다. 혼자하던 블로그가 블로그를 함께 운영할 작성자들을 모집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팀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 퀄리티를 높여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 광고 수익, 제휴 마케팅, 후원, 제품판매 등 다양한 수익을 발생하게 된다.

협업과 독자적인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첫째, 리소스 및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 협업을 통한 수익창출은 여러 명의 리소스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전문분야를 활용하면서 높은 수준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반면, 독자적인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은 자신의 전문성과 리소스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협업을 통한 수익창출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자유도에 있다. 독자적인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협업을 통한 수익창출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의와 타협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책임에 대한 부담의 차이가 있다. 협업을 통한 수익창출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다. 반면, 독자적인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은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협업을 통한 수익창출에서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독자적인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에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공동체를 통한 수익창출과 독자적인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돈은 무엇일까? 돈은 거래 수단이자 가치의 교환 매체이다. 돈은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가치나 서비스, 노동력 등 다양한 것들을 대표할 수 있다. 또한 돈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가격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적 자원을 분배하고 교환하는 데 있어서 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며, 이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아울러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빌려서 자신의 재산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돈의 가치는 시장 경제와 인간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돈 이외에도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지지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혼자서 열심히 활동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개인적 필요로운 삶을 살면 된다. 같이 함께 하여 더 같이 필요로운 삶을 살아도 된다. 혼자이든 함께 하든 필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독자투고

벌쏘임 예방 및 긴급상황 시 행동요령



매년 이맘때쯤이면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번 여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완화되어 많은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는 날씨, 접근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 가운데 의외의 사항이 하나 있었으니 말벌의 공격이다.

예방법으로는 첫째, 말벌은 꿀이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꽃향기가 나는 향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말벌은 니트 소재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면이 매끈한 옷에서는 벌의 흔적을 찾기 힘들지만 니트 소재의 옷에는 벌집이 발견되는 일이 잦다. 이는 말벌이 거친 표면을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셋째, 말벌은 검은색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벌에 쏘인 사람들을 보면 검정 머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급적 밝은 옷을 착용해 예방하도록 하자.

이러한 예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말벌에게 공격을 받았을 경우, 벌 독에 의한 사망 시간은 70%가 쏘인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벌 독이 몸에 퍼지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울혈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산속에서 벌에 쏘였다면 일단 지갑 속에 카드가 있나 찾아본다. 카드 등으로 벌 침이 몸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 밀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쏘인 부위를 비누 등으로 씻어내는 것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위급 시 임시적인 응급조치이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119에 신고해 벌집을 제거하도록 하자.

〈박지용·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군공항 통 큰 지원 광주시와 전남도 후속 논의 중요

광주시가 군공항 유치 지역에 1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기존 추산액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다만 전남도는 유감을 표명했다. 진일보했지만 부족하다고 봤다. 진정성을 가지고 후속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강기정 시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당초 기부대 양여에 의한 차액으로 산정했던 4천500억원에 자체 재원을 추가해 조정한다. 특히 유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무안과 함평군을 염두에 둔 듯 의향서가 제출되는 시점부터 햇빛연금, 스포츠아카데미, 항공정비(MRO) 산단, 국제학교 등 맞춤형 사업을 제시했다. 최대 쟁점인 소음과 관련해서, 110만평의 완충구역은 추가로 확보하고, 휴면시간 및 비행경로 조정 등 국방부·공군본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다. 또 유치지가 확정되면 특별법에 명시해 가구별, 개인별 이주정착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며, 공공주택을 포함한 이주단지, 정주시설 등을 집적화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간 5천여명이 교육을 받는 광주시공무원교육원 신축 등 공공기관 이전도 포함됐다.

'통 큰 보따리'를 광주시가 내놨다. 녀적이지 않은 재정 상황이나 특별법에 따라 정부 용자를 받게 돼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그 배경을 들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 지역이 미래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무안군에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전남도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전남도는 입정문을 통해 사전 논의가 없었고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고, 민간공항 관련 언급이 빠져 있다며 분명한 했다. 지원사업비 산출 근거로 2016년 발표한 4천500억원을 기반으로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무조정실과 광주시가 2022년 재산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군공항은 결코 남비시설이 아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핵심시설이다. 광주와 전남, 상생을 위한 이전 사업이다.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 양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야 하겠다.

흥행 가능성 확인한 남도고택 체험 프로그램

전남도 명예·홍보대사 신카이 미야코와 함께 하는 약산요리 투어에 참여한 일본 생활협동조합 회원 20명은 최근 보성 강골마을 열화정을 방문했다. 이들은 전남 3대 명품고택 중 하나인 이진래 고택과 국가민속문화재인 열화정, 보성의 대표 특산물 녹차와 문화예술을 결합한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잊을 수 없는 멋진 추억을 선물받았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남도고택 사업의 취지와 열화정의 수려한 경관에 어울리는 콘텐츠로 다도체험과 한국 전통공연을 준비했다. 이순신 장군이 보성에서 즐겨 마셨다는 일화를 지닌 양산향가의 떡차와 정갈한 다식은 입맛을 사로잡았고 민요와 판국, 죽방울놀이와 배나돌리기 등 전통문화는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숨은 명소의 고택과 오랜 시간 이어진 정경화를 관광과 연계해 널리 알리는 사업이 흥행 가능성을 새삼 확인했다.

종가문화는 모든 문화유산의 종합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사와 생활사를 아우르며 선조들의

삶의 정신과 문화가 서렸다.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호국과 충절의 상징이기도 하다. 대대로 전승된 종가음식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대접하는 의미가 담겼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다. 전남이 종가의 중심지다.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핵심으로 종가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도내 130개 현황 보고서 발간, 고택 체험, 종가 종택 보수 정비 등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 및 세계화를 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일본 관광객에게 선보인 남도고택 체험이 만족도가 높았다. 종가의 역사, 법도와 예절, 음식·종택의 진수를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 K-컬처 특화 콘텐츠로 손색이 없다. 경쟁력이 충분하다. 전남도는 종가와 협업을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뜻깊은 작업이다. 일상 속에서 색다른 휴식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의 욕구를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케팅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성별임금격차 40% 넘는 곳은 농업의 전남, 제조업의 울산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